

정경환 희곡집

나! 테러리스트

나 이 저 위 달 구 매 셔
405 옹 령 문 서 후 라
아 름 다 우 이 곳 에 살 리
라 태 봉 나 테 러 리
스트 난 난

산지니

내 테러리스트

초판 1쇄 펴낸날 2009년 12월 14일

지은이 정경환

펴낸이 강수결

펴낸곳 산지니

등록 2005년 2월 7일 제14-49호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가계동 1493-2 호정빌딩 601호

전화 051-504-7070 | 팩스 051-507-7543

sanzini@sanzinibook.com

www.sanzinibook.com

©정경환, 2009

ISBN 978-89-92235-78-5 03810

값 15,000원

* 이 책은 부산광역시 2009년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은 e-CIP 홈페이지(<http://www.nl.go.kr/cip.php>)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 제이번호 : CIP 2009003821)

정경환의 극집

내 테러리스트

산지니

- 회곡집을 내면서

회곡은 미완성이다

20살. 성인이 되길 얼마나 기다렸는지. 머리를 산발같이 기르고 신나는 일들을 만들어서 호탕하게 웃으면서 길에선 언제나 담배를 물고 내 멋대로 옷을 입고 다녔다. 난 아직 세상을 아름답고 밝게 보고 싶었는지 모르겠다. 고민도 하지 않았다. 무엇이든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싫었고 모든 것들이 베일에 싸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더 좋은, 아직 취기 어린 미완성의 시절이었다.

시시해졌다. 1년이 지나자 갑자기 철이 든 것도 아닌데 모든 것이 부질없고 무력감이 찾아왔다. 말문은 단혀버리고 겨우 말을 해도 초리한 허풍과 허탈한 내 자조만이 실없이 내뱉어졌다. 몇 달의 자기비하 기간을 보내고 문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한동안 목적 없는 독서의 시절을 보냈던 사춘기를 믿었을까? 글에 대한 안목도 초라하기 그지없던 시절, 작기가 되고 싶었다.

이문

내가 믿고 소중하게 생각해온 것들이 갑자기 아니라는 생각. 젊음을 암울하게 보낼 거라는 예감이 찾아왔다. 그 후 난 뭔가에 짓눌려 있던 나의 의식들을 미워하면서 역설적인 행동으로 나를 합리화하고 닦치는 대로 세상을 상상했다. 그 과정에서 나의 상상에 비참하게 내동댕이쳐져 구렁텅이로 빠진 인물들은 수도 없었다. 어쩔 인간의 삶과 역사가 그렇게까지 더럽고 구역질이 날까?

시간은 홀리 세상과 사람이 철이 들어 앞만 보고 내달릴 때까지도 난 홀로 새벽 불안과 번민과 함께 겨우 잠을 잘 수 있었다. 그때 연극이 내게 찾아왔다.

거짓은 자유롭다

세상의 모든 것은 진실만 이야기하고, 연극의 모든 것은 상상이며 거짓이다. 가장 암울한 상태, 좌절과 불안 속에서 새로운 개별의 날을 맞이하듯 한눈팔지 않고 연극의 거짓에 자유로워하며 희곡을 쓰고 연출했다. 경제적 절박감을 애써 외면하면서 내 정신의 무지비한 시간과 함께 오늘까지 왔다.

원시적인 본능이 꿈틀거리는 연극

연극은 영상이 가져온 무한대의 환경에 비해 한정된 무대라는 한계가 있다. 무대라는 한정된 시간과 공간은 오히려 관객의 상

상력을 자극하면서 더욱더 인간에 가까워진다. 규정지를 수 없는 그 무엇, 은유와 운율로서 인간의 여백을 찾아내는 작업. 육체와 육체가 부딪치는 본능. 말로 다하지 못하는 상징, 그리고 이미지. 이것이 연극의 미학이었다.

이것들을 맨눈으로 목격한다는 사실. 이보다 진실은 없었다. 이 매력은 한 인간이 어느 날 자기 위선으로 뒷위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가면을 쓰고도 자기 자신인 양 착각하는 모순을 알게 했고, 진정한 자신을 인식하게 만들어 부끄럽게 했다. 나 자신의 해석되지 않던 위선과 모순들이 연극 속에서 삼켜버린 것일까? 난 연극과 씨름하면서 날 발전했다. 나에게서 연극은 이렇게 구원이며 종교가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자기 위장의 방편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의 문 속에서 난 지금까지도 지하 구장에 있다.

이 희곡집에서 〈난난〉은 20대에 소설로 구상해두었다가 희곡으로 바뀌 발표했고, 〈태몽〉은 첫 번째 이라크 전쟁 때 파병 문제로 남의 나라 전쟁에 간섭해야 하는 우리나라 현실이 초라하게 느껴져 어린 시절 월남전의 기억을 더듬어서 만들었고, 〈나의 정원〉은 어른이 되어 그저 신나게 지나다가 우연히 보게 된 사진과 영상들, 전율을 경험한 사건이라 한 번은 이야기해야 계속 글을 쓸 것 같았다.

〈아름다운 이곳에 살리라〉는 극단 창단 10주년 되는 해, 힘든 생활에 찌든 내 모습이 거울에 비치는데 다시 한 번 용기를 가져

보지는 생각에 착각했다. 무엇 때문에 아직도 연극을 하고 있는가? 초발심은 남아 있는가? 인생을 연극과 함께 하겠다는 다짐에 대한 답으로서 만들었다.

〈나 테러리스트〉는 시놉시스만 구성하고 있다가 부산시립극단 소극장 페스티벌에 참가하게 되고 마침 8월 중에 공연을 하게 되어서 광복절 기념으로 만들어보았다.

이 책에 실은 작품은 공연했던 희곡들만 모았다. 지난 과정의 상처와 흔적이다. 다음 희곡집은 신념과 사랑이 주제가 될 것이고, 그다음 희곡집은 자유가 될 것이다.

연극하는 사람

연극은 희곡을 자산으로 연출자는 형상화를 연구하고, 배우들의 표현과 음악, 미술 등 여러 요소들이 참가되면서 무대 위에 막이 오르게 된다. 그리고 관객을 만날 때 비로소 한 작품이 완성된다. 이렇게 연극은 참 많은 사람들이 만나야 한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만큼 힘든 것이 없다. 사람이 뭔기? 참 많지도 다르다. 이 다름이 만나서 연극 속에서 같은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신기하다. 도를 닦는 사람처럼 연극하는 사람들은 절도 만나고 의식을 공유하고 잘 참는다. 연극을 통해서 인간이 달라진다.

나도 참 많이 변했다. 겸손하고 조금은 사람답게……. 내 작품과 함께 하며 열정을 나누었던 출연 배우와 스태프들을 기억한다. 독한 사람 만나 고생 많이 했다. 같이해서 행복했다.

작품속의 인물들

작품을 통해 많은 인물들을 만들면서 만났다. 석주, 윤대장, 아빠라고 불리는 남자, 동수 그리고 아들 등……. 이들의 고통과 회생 아래 내 작품의 토대를 쌓았다. 그들도 얼마나 아팠을까? 미안하다는 생각밖에 안 난다.

…….

신세 진 많은 분들이 생각나면서 일일이 찾아가서 고맙다고 진심으로 손 한 번 잡고 싶다. 이 소박한 희곡집이 그분들에게 그나마 나를 이해해 달라는 조그만 변명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 특히 나의 이기심과 경제적 무능력으로 가장 고통받은 나의 영원한 동지이자 연인, 내 새끼들에게… 사랑한다.

아직도 소년 같은 희망과 꿈을 꾸면서 이 작품집을 보낸다.

2009년 늦가을에
정경환

회국집을 내면서 • 005

나의 정원 • 013

달궁맨션 405호 리브스토리 • 057

아름다운 이곳에 살리라 • 099

나! 테러리스트 • 159

태몽 • 209

단단亂亂 • 263

해원 김문홍 **질곡의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단죄와 트라우마** • 306

권영리님 **백포리 '정원'의 '구명'으로 스며드는 폭력의 기억과 상흔** • 326

작가후기 **정경환 연극은 나의 구원** • 336